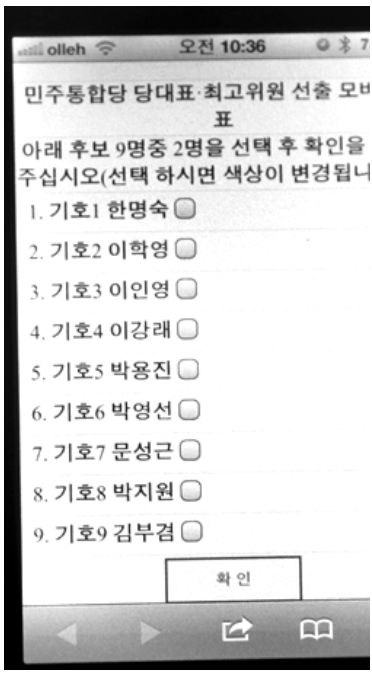


민주 전대주자들 “2040 모바일족 잡아라”

모바일 유권자 88% 달해...SNS 선점 주력 대의원 표심잡기 합종연횡도 본격화 예상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의 최대변수로 부상한 시민선거인단 투표가 9일 시작되면서 경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오는 15일 열리는 전당대회 전체 선거인단 79만2273명 중 시민선거인단은 64만335명에 달해 시민의 투표 향배가 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령대를 보면 20~30대가 44.4%에 달하고 55.6%로 집계된 40

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40대 시민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2040 세대’가 대거 투표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선거인단 중 88.4%인 56만9000명이 모바일 투표로 신청, 청장년층의 모바일 투표가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과거 조직 동원이 가능했던 체육관 선거와는 다른 선거인단 지형이 펼쳐지면서 9명의 후보들은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대척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소통 창구인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화영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 본인이 수시로 트윗글을 직접 올리고 있으며, 캠프는 SNS 접속자와 우호적인 트윗글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지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후보들의 트윗글은 한·미 FTA 재협상, 청년실업,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등 젊은층의 관심 분야에 초점

이 맞춰졌다.

박지원·이인영·이강래 후보 등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공전을 전개했으며, 박영선 후보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신촌과 명동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플래시몹을 준비 중이다.

10만~20만 표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노총, 5만 표 가량으로 추산되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리크), 팟캐스트

트 ‘나는 꿈수다’(나꿈수) 지지자 등은 주요 공략 포인트로 떠올랐다.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를 앞두고 대의원 공약을 위한 후보들간 합종연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만1000명인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는 최종 결과에 30% 반영된다. 특히 시민선거인단이 크게 확대되면서 대의원 1표는 시민 15표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

한 후보 진영 캠프 관계자는 “1인2표제 투표이기 때문에 후보들끼리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펴면서 대의원 표를 주고받으려 할 것”이라며 “지지층이 있는 문성근·박지원·이화영·이인영·김부겸 후보가 합종연횡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이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인 민주통합당도 경선주자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져 뒤숭숭한 가운데 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원혜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습스

민주통합도 ‘돈봉투’ 의혹

“모 후보 30만~50만원 줬다” 보도 진상조사 착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이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인 민주통합당도 9일 경선주자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져 뒤숭숭하다.

일부 언론은 이날 영남권 지역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지난해 12월 26일 치러진 민주통합당 전대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모 경선후보 측이 일부 지역위원장들과 식사를 하며 30만~50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이날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혜영 공동대표 주재로 긴급최고위

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종식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통합당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정치권 전체가 금권선거의 후폭풍에 요동칠 전망이다.

오 대변인은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며 “조사 결과 불법·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격 박탈과 검찰 수사 등 모든 정치·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홍재형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돈 전대’ 한나라당 패닉상태

총선 3개월 앞두고 위기감 고조...박희태 의장 등 당 인사 출소환 예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나라당이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불과 3개월 남겨놓은 총선 위기감이 가파르게 고조되면서 당내에는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당 인사들을 출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이 고승덕 의원이 제기한 돈봉투 사건을 넘어서 수사를 확대할 경우 한나라당은 난파선 신세를 면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개연성이 크다.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측 인사가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 50만원씩 불려다 못 지

했다는 설이 있고, 300만원 돈 봉투를 비단 고 의원만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우선 박희태 후보를 친이(친이 명박)계가 집중 지원했다는 점에서 친이계를 대상으로 조사가 예상된다. 동시에 검찰 수사는 2008년뿐 아니라 2008년 비례대표 공천과 2010년 전당대회에도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로서는 총선 대열을 정비하는 대신 ‘돈 선거’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9일 “총선 치르기 더 힘들어졌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패한 당으로 인식돼 있는데 더욱 썩은 담이 됐다”

고 꼬집었다.

이처럼 돈 봉투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재창당론이 쇄신파와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친박 일각에서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차떼기 정당’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간판으로는 4·11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이날 ‘전대 돈봉투’ 사건 등 당내 각종 문건에 의혹에 대해 “검찰이 모든 부분을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용섭 의원, 내일 의정보고회

민주통합당 이용섭 국회의원(광산 을)은 11일 오후 2시 광주 남부대 협동관에서 4년간의 의정 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이 의원이 직접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예산 확보 내용, 선거공약 이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보고한 뒤 지역민의 건의나 조언을 현장에서 직접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8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수완 수영장 원안 건립추진위원회와 부영 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의 활동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도 가질 계획이다.



이민원, 총선 광주 남구 출마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장관급)을 역임한 이민원 광주대 글로벌경영학과장이 통합진보당 후보로 4월 총선에서 광주 남구에 출마한다.

이 교수는 10일 오후 6시 광주 대학교 호심관 대강당에서 ‘균형이 희망이다’라는 제목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한 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남구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9일 “평생의 학문적 관심사인 균형 발전의 테마가 지역균형, 지방분권에서 정치균형, 경제균형, 계층균형으로 이동해왔다”며 “학문의 영역에서 느꼈던 이론적 갈등을 정치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정남준 ‘돈 조직 정당정치 대책없다’

정남준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구 을)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돈 봉투 살포 의혹과 함께 과거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경선에서도 금품 살포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 체제를 불려올 정도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현 정당구조가 돈 조직 줄로 엮어진 난마로 대책이 없고, 이것이 간접 민주주의 한계라는 자조도 있다”며 “국민은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원하고, 다가오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펼칠 정직하고, 참신한 사람만이 지금의 불량 정치를 바로 잡아 줄 현실적인 대안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원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종 위기 식물 177종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감성적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붕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돔나무 진액 참돔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돔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돔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에도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신지를 찾아 해매린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돔을 만들었습니다.

▶옷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돔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